

September 29, 2006

dongA.com

박근혜-메르켈 '6년만의 재회'...獨서 30여분간 회동

독일을 방문 중인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28일 오후(현지 시간) 베를린에서 독일의 첫 여성 총리인 앙겔라 메르켈(52) 총리를 만났다.

박 전 대표가 2000년 한나라당 부총재 시절 독일을 방문했을 때 기독교민주당(CDU) 당수였던 메르켈과 만난 뒤 6년만의 재회였다. 두 사람은 각각 당 대표와 총리직에 올랐을 때 서로에게 축전과 편지를 보내는 등 친분을 유지해 왔다.

메르켈 총리 집무실에서 30분간 진행된 회동을 마친 뒤 박 전 대표는 "서로 공통점이 많다고 공감한 유익한 대화였다"며 "메르켈 총리에게 '시베리아 철도

로 대륙횡단 여행을 하는 게 꿈이라고 들었는데 한국까지 이어지는 철도를 같이 만들어 보자'고 제안했고 메르켈 총리도 '좋은 생각'이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박 전 대표는 지난달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으로 선정한 메르켈 총리와의 이번 회동을 통해 '강한 리더십의 여성지도자'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키려는 생각이다.

우선 두 사람은 위기에서 당을 맡았던 것부터가 비슷하다. 메르켈 총리는 헬무트 콜 전 총리의 비자금 스캔들로 당이 만신창이가 된 2000년 아무런 기반 없이 사실상 '시한부' 당수직에 올라 성공적으로 조직을 추스르면서 대권의 꿈을 키웠다.

박 전 대표는 2004년 대통령 탄핵으로 정국이 파란에 휩쓸리던 시점에 당 대표가 돼 총선을 지휘했고 이후 각종 선거를 승리로 이끌면서 본격적인 대권 가도에 들어섰다.

박 전 대표는 특히 메르켈 총리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시장 유연화, 노조의 경영 참여 축소, 법인세 인하 등의 정책을 벤치마킹해 대선용 경제 마스터플랜의 골격으로 삼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메르켈 총리가 이웃 프랑스와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사민당 정부 시절 이라크전쟁에 반대해 소원해진 미국과의 동맹 복원에 적극 나서는 것도 주목하고 있다.

박 전 대표는 실리외교를 통해 한미동맹을 복원하고 일본과의 관계를 재정립해 대북 및 동북아



독일을 방문 중인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왼쪽)가 28일 오후(현지 시간) 독일 최초의 여성 총리인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6년 만에 재회했다. 베를린=연합뉴스

September 29, 2006**dongA.com**

Übersetzung

Die ehemalige Parteivorsitzende Park Geun-hye: „Wenn Nordkorea seine Atomwaffen aufgibt, kann eine ‚Northeast Asia Development Bank‘ gegründet werden“

Nach Ansicht Park Guen-hyes solle im Falle eines Einlenkens Nordkoreas im Atomkonflikt eine „Northeast Asia Development Bank“ gegründet werden, an der sowohl die Nachbarländer als auch Internationale Organisationen beteiligt wären. Dies verkündete sie während einer Rede in der Konrad-Adenauer-Stiftung am 28. September in Deutschland.